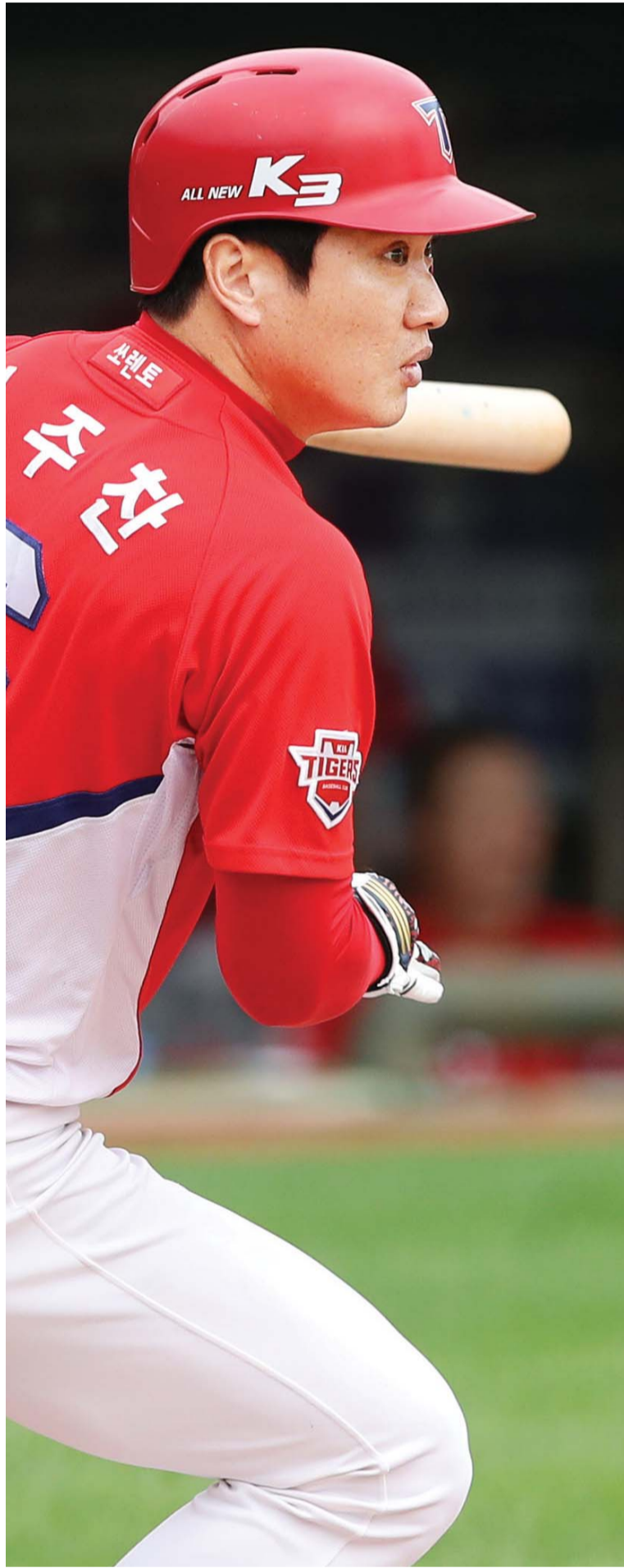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깨어나라 베테랑



T 타이거즈 전망대 삼성·NC와 6연전

KIA 타이거즈,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KIA는 잠실, 고척으로 이어진 원정길에서 1승 4패의 전적을 안고 돌아왔다. 유일했던 1승을 거두기까지 패배는 9경기 연속 이어졌다. 지난 21일 10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10위까지 추락했던 KIA는 여전히 최하위 자리에 머물고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패배로 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양현종은 여전히 불안했고, 김주찬은 공수에서 고개를 숙였다. 해줘야 할 주축 선수들은 제 몫을 못해줬고, 부끄러운 실수들도 이어졌다. 반전이 절실한 KIA는 30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이어 NC의 새 안방으로 가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싸늘해진 팬심 속에 KIA는 안방에서 운명을 건 '벼랑 끝 매치'를 벌인다. 9연패를 하며 승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KIA와 8위 삼성의 거리는 멀지 않다. KIA가 29경기에서 9승 1무 19패(승률 0.321)를 기록하는 동안 삼성도 10승 19패(승률 0.345)로 부진했다. 경기 차로는 삼성이 반걸음 앞서 있다.

■ KBO 중간순위 (2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30	20	9	1	0.690	0.0
2	두산	31	21	10	0	0.677	0.0
3	LG	29	18	11	0	0.621	2.0
3	NC	29	18	11	0	0.621	2.0
5	키움	31	18	13	0	0.581	3.0
6	한화	28	12	16	0	0.429	7.5
7	롯데	29	11	18	0	0.379	9.0
8	삼성	29	10	19	0	0.345	10.0
9	KT	31	10	21	0	0.323	11.0
10	KIA	29	9	19	1	0.321	10.5

가 이어지면서 보통의 타구가 안타로 둔갑하기도 했다. 야수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경기였지만 터너가 평정심을 잃고 그라운드에서 고스란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터너는 누구보다 냉정한 자세로 수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반전의 또 다른 키는 '캡틴' 김주찬이 쥐고 있다.

김주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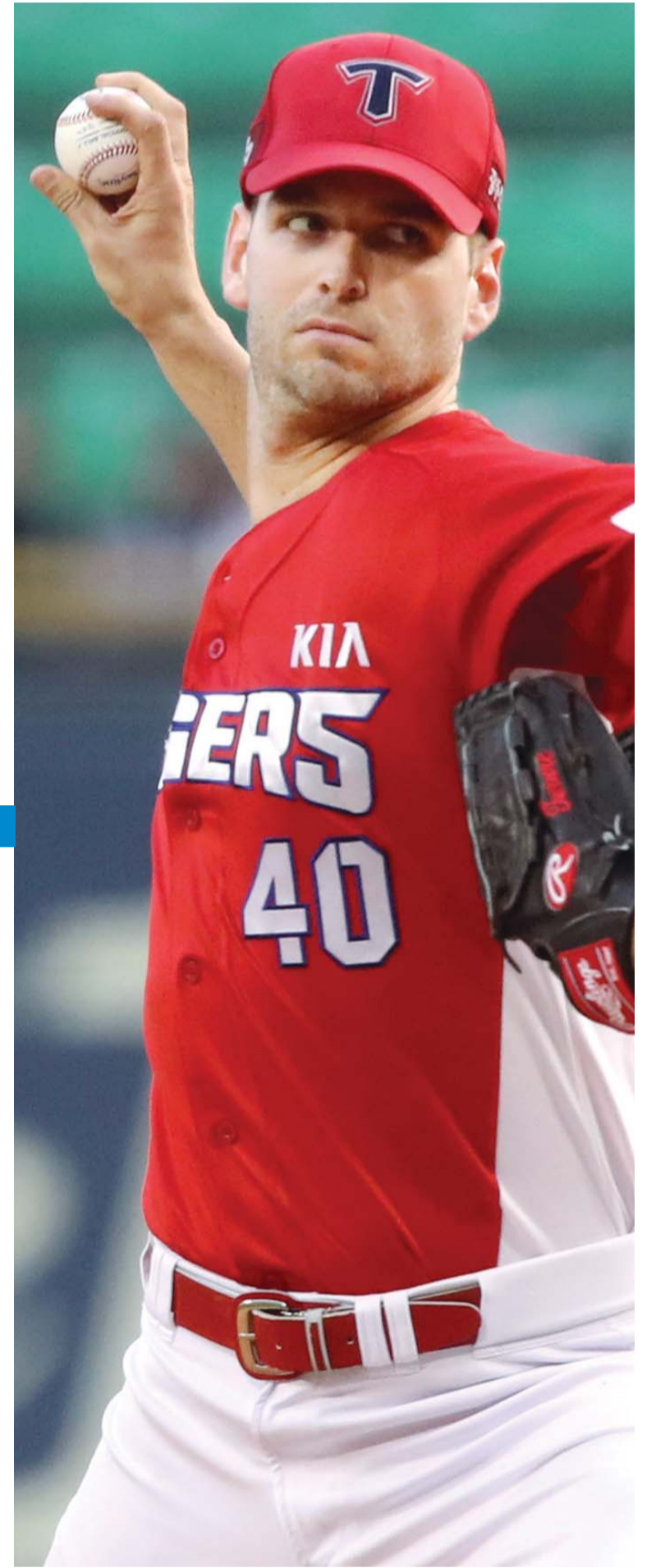
시즌 21경기 타율 0.215
부진한 공격·아찔한 수비 '난국'
주축선수 제역할 해야 분위기 반전

KIA는 반 경기 차 밖에 있는 삼성과 운명을 건 승부를 하게 됐다. 승리 없는 선발 터너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책임진다. 터너는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5.85의 평균자책점으로 승 없이 3패만 기록하고 있다. 6차례의 등판에서 소화한 이닝도 32.1이닝에 불과하다. 특히 LG 트윈스와 기억이 좋지 못하다. 지난 3월 24일 LG를 상대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그는 2회까지 7실점을 하는 등 5이닝 10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8실점(7자책점)의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그리고 한달 만에 잠실에서 다시 만난 LG를 상대로 시즌 3패째를 기록했다. 터너의 이날 성적은 4.1이닝 10피안타(1볼넷) 2탈삼진 9실점(6자책점). 성적도 좋지 못했지만 야수들의 황당한 수비

터너

시즌 6경기 승리 없이 3패
32.1이닝 평균자책점 5.85
첫 승 절실...수비 중심 거듭나야

김주찬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단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21경기에 나온 김주찬은 84타수 17안타로 0.21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홈런은 없다. 볼넷은 2개를 끌러내는 데 그쳤고, 11차례 삼진으로 물러났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아찔한 수비가 더 문제다. 올 시즌 기록된 실책은 2개. 하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실수들도 눈에 띄었다. 박찬호, 이창진, 한승택 등 '젊은 선수'들이 분전을 하고 있지만 김주찬을 비롯한 주축선수들의 집중력 떨어진 공·수가 KIA 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 위기의 KIA가 앞선 실패를 교훈 삼아 반전의 무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두산-롯데 감독, 왜 설전을 벌였나

KBO, 28일 경기 정수빈 부상 후 대처 상황 조사

KBO가 28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 사령탑 사이의 설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KBO는 29일 "양쪽 구단, 심판 등 당시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영상도 분석 중이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살피며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는 김태형 두산 감독과 양상문 롯데 감독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대치했다. 두산이 9-2로 크게 앞선 8회 말 2사 1·2루에서 롯데 우안 구승민의 공이 두산 정수빈의 허리를 강타했다. 정수빈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격정스러운 표정으로 홈플레이트 근처로 다가왔고 롯데 공필성 수석코치에게 불만을 표했다. 김태형 감독은 "정수빈이 '악'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처음에는 선수 상태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며 "그런데 선수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 감정도 격해졌다. 마침 평소 편하게 얘기하는 동갑 공필성 코치가 앞에 있었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욕설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선수(구승민)에게는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상문 감독도 덕아웃을 박차고 나와 김태형 감독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양 감독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지도자가 선수에게 욕을 해서 되는가"라며 "(구승민에게는 욕을 하지 않았다) 상대 팀 수석코치에게 욕을 해도 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KBO 야구 규칙은 6조4항 '경기중 금지사항'에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치석, 그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번째 항목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 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언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KBO는 "상대 코치에게도 폭언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더했다. /연합뉴스

류현진-범가너 또 만났네

류, 내달 2일 샌프란시스코전 선발 시즌 4승 도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시즌 6번째 등판 일정이 발표됐다. 류현진은 다음 달 2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해 매디슨 범가너와 맞대결을 펼쳤다. 다저스 구단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 선발 투수를 예고했다. 류현진은 마지막 경기에 등판한다. 올 시즌 3승 1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 중인 류현진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상대 팀 에이스 범가너와 인연이 깊다. 2013년 4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범가너를 상대 투수로 처음 만난 뒤 총 8

차례나 맞대결을 펼쳤다. 가장 최근 만난 건 지난 3월 홈경기에서다. 류현진은 7이닝 동안 2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반면 범가너는 6이닝 5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최근 흐름도 류현진이 낫다. 류현진은 부상에서 돌아온 21일 밀워키전에서 5.2이닝 2실점, 27일 피츠버그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특히 최근 2경기 12.2이닝 동안 볼넷을 단 1개만 허용하는 등 수준 높은 제구력을 보였다. 반면 범가너는 20일 피츠버그전에서 6이닝 4실점, 27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5.2이닝



류현진



범가너

5실점으로 부진했다. 양키스전에선 무려 11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는 등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 타자들과 상대 성적도 나쁘지 않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피안타율은 0.185에 불과했고, 브랜던 벨트(0.200), 조 페이(0.167·이상 대타율) 등 대다수 주력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팀 타선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호재다. 샌프란시스코는 28일까지 팀 타율 0.211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전통의 지구 라이벌이었던 양 팀의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

'명불허전' 한국 양궁

월드컵 금4·은1·동1 종합 1위...내달 6일 중국서 2차 대회

양궁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메달 6개를 따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29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끝난 2019 현대 양궁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4, 은1, 동1을 수확했다.

남자 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 이승윤(서울시청), 이우석(국군체육부대)이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 호주를 세트 승점 5-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순천시청), 장혜진(LH), 강재영(현대모비스)이 출전한 여자 단체전에서도 한국은 이탈리아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혼성 결승에서는 김우진-강재영 조가 접전 끝에 세트 승점 5-4로 미국을 꺾고 1위에

올랐다. 강재영은 여자 개인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대회 3관왕이 됐다. 이우석은 남자 개인 결승에서 라이벌 브래디 엘리스(미국)에게 패해 2위를 차지했다. 김우진은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1차 대회를 마친 대표팀은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달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차 월드컵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